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에서의 교회개척사례

발제자: 양병순

서 론

1991년, 철의 장막이었던 구소련이 무너지면서 영적으로 척박했던 중앙아시아 땅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와 선교사역을 시작한 지 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30년 전 중앙아시아는 공산주의 무신론으로 묶여진 그야말로 복음의 불모지였다. 그곳에 필자가 속해 있는 단체인 “한국 침례교 해외선교회(FMB)” 소속 선교사 4명도 그 땅에 첫 발을 내딛으면서 동토를 복음으로 녹여냈다. 그 후 그들의 뒤를 이어 수많은 선교사들이 들어가면서 중앙아시아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도시마다 지역마다 교회를 개척하여 세웠고, 또 그 교회들이 성장하면서 또 다른 여러 지역에 교회들을 세워 나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

코로나로 인해 2022년 3월에 “카자흐스탄 선교 30주년” 행사를 한 해 늦게 하게 된 카자흐스탄 침례교 선교사들은 “서른 살, 청년이 되어 바라보는 카작 선교”라는 제목으로 지난 30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30년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다. 감사하게도 지난 30년 동안 카자흐스탄에 73개, 키르기즈스탄에 27개, 우즈벡키스탄에 8개, 총 108개의 교회를 세웠음을 보고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다. 물론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결과임을 먼저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뿐만 아니라 지난 30년 동안 중앙아시아를 위해 기도하며 물질로 후원해 주신 한국과 미국 등의 교회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땅을 위해 사랑을 전해 준 수많은 후원자들, 그리고 그 땅에 생명과 삶을 드렸던 장, 단기 선교사들, 그리고 여름, 겨울 팀을 이루어 그 땅을 밟고 한 알의 씨앗을 심고 돌아간 선교팀들, 그리고 그 땅에 남은 자로서 복음을 받아들인 신앙의 첫 카작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었다고 믿는다.

필자는 1996년부터 카자흐스탄에서 사역하면서 한국 침례교 선교사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었던 사역에 있어서의 몇 가지 특별한 점에 주목하여 “카자흐스탄에서의 교회개척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카자흐스탄 침례교 선교사역에 대해 연구하고 평가한 두 개의 박사 논문과 그 밖에 여러 자료들도 참고하였다. 특별히 두 개의 논문 중 하나는 현 침례교해외선교회(FMB) 회장이며 1세대 카자흐스탄 선교사인 주민호 선교사의 2018년 논문 “선교적 교회 관점에서 본 카자흐스탄 침례교회”와 또 하나는 역시 1세대 카자흐스탄 선교사이며 현 중앙아시아 침례신학교 학장인 김현종 선교사의 2020년 논문 “A study on the Importance of the Central Asia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in Central Asia Mission and Its Catalytic Role for the Unity”이다.

본 론

“카자흐스탄”은 “카자흐 민족의 땅”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것은 카자흐스탄의 주인이 카자흐 민족이라는 것이지만 특이하게도 이 땅은 130여 민족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고 있는 연합 국가이다. 그러다보니 겉으로 보기에는 모슬렘 종교와 모슬렘 문화를 가진 나라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각 민족에 따른 다양한 문화와 언어, 음식 뿐만 아니라 종교에 있어서도 다양한 종교를 갖고 있다. 태양신 숭배, 애니미즘, 토테미즘, 천신숭배, 샤머니즘, 조로아스터교, 불교, 네스토리안, 이슬람, 러시아 정교회, 러시아 침례교회 등의 종교적 토양을 갖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기독교 개신교를 전파한다는 것이 쉽지 만은 않다. 하지만 중앙아시아 침례교 선교사들은 그땅에 교회들을 세우고 가히 선교적 모델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성과를 이루어 냈다. 그 비결이 무엇인지를 조심스럽게 하나 하나 들여다보자.

“교회와 교단, 선교사, 그리고 현지교회의 아름다운 협력”

NCOWE에서는 2010년 선교현장 모범 사례로 “중앙아시아 한국침례교회”를 소개하였다. 그 글에서는 카자흐스탄에서의 침례교회 사역의 특징을 교회 개척사역, 신학교 사역을 통한 지도자 양성, 그리고 현지교회/ 현지총회와의 협력을 이야기 했다. 또한 팀사역과 리더십 이양, 현장 중심의 사역, 그리고 선택과 집중을 특징으로 보았다.

이것을 좀 더 설명한다면 카자흐스탄의 선교사들은 “교회개척”을 사역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았다는 것이고, 사역에 있어서 혼자가 아닌 “연합”과 “팀 사역”을 통해 현지 리더십들을 세워 나갔으며, 그렇게 세워진 현지 리더십들이 지금은 현지 총회를 만들어 선교사들과 함께 협력 사역을 계속 진행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 사역의 모델은 어쩌면 다른 교단이나 단체에서도 볼 수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마치 눈에 보이는 시계 바늘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은 수많은 톱니 바퀴가 맞물리고 연결되어서 하나가 되어 움직일 때 초침과 분침, 그리고 시침이 움직이는 것처럼 “카자흐스탄 침례교지부”는 “침례교 해외선교회(FMB)”와 “중앙아시아 침례교 현지총회”, 그리고 카자흐스탄에 세워진 개교회들이 거대한 하나의 몸을 이루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어느 하나라도 움직이지 않으면 시계가 멈추는 것처럼 카자흐스탄의 사역은 서로 맞물려 있고, 모든 조직은 하나로 되어 있으며, 거기에서 나오는 힘과 저력은 참으로 놀랍지 않을 수가 없다.

팀사역

중앙아시아 침례교 사역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를 꼽는다면 “팀 사역”이다. 카자흐스탄의 모 선교사는 “팀 사역”에 대해 설명하면서 “큰 그림의 한 퍼즐이다.”라고 표현했다. 각자가 작은 조각이지만 각 사람이 있어야 할 시기에, 있어야 할 위치에 있다면 전체 퍼즐이 제대로 맞추어져 갈 것이다.

“팀 사역”이 참으로 어려운 것임을 잘 알기에 처음부터 중앙아시아 침례교 선교사들은 이것을 하나의 선교전략으로 세워놓고 함께 팀으로 사역했다. 팀사역이 위기를 맞을 때도 있었으나 “싸우되 판은 깨지 말자.”고 하면서 지켜 나갔고 그 결과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놀라웠다고 할 수 있다.

팀 사역은 수직적 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로 만들었다. 일반적인 팀 사역의 모델이라고 한다면 담임목사와 부목사 같은 “지시와 수행”이라는 관계로 이루어져 있지만 중앙아시아 침례교 사역은 동역자로서 역할을 분담하는 팀 사역의 모델을 가지고 시작했다. 팀 안에서 의견과 비전을 나누고 공동의 목표를 세워서 자신의 역할을 통해 이루어 내는 모델이었다.

중앙아시아 침례교 선교사는 팀 사역으로 사역을 하기에 카자흐스탄 선교사로 나오려면 나오기 전부터 이미 팀이 정해졌다. 팀이 아니면 카자흐스탄 선교사로 나올 수 없는 구조였다. 그렇게 처음부터 팀원으로써 팀의 도움을 받으며 선교지로 들어온다. 그리고 사역은 팀 안에서 팀원으로써 각자의 은사와 역할에 맞는 사역을 맡게 된다.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팀 안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만 감당하면 되었다.

그러다보니 카자흐스탄의 대표적인 지역에 중심 역할을 할 만한 제법 규모있는 교회들을 세울 수가 있었다. 지금도 그 대표적인 교회들이 수많은 지교회들을 세워 나가는 것을 볼 때에 초창기 팀 사역을 통해 하나의 교회를 함께 세워 나간 것은 매우 중요했다고 보여진다. 한 개인이라면 쉽지 않았을 만한 사역을 팀으로 함께 만들어 간 것이다.

물론 팀 사역으로 인해 힘들었던 상황들도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팀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이 팀 사역의 성패는 팀장에게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민족별, 언어별, 지역별 팀사역

카자흐스탄 침례교 사역의 자랑이라면 카자흐, 고려인, 위그루, 둔간 등 민족별 대표적 사역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사역을 시작할 때 민족별로 접근하는 전략을 세운 것이다. 그래서 카자흐스탄에 있는 각 민족의 대표적인 교회를 꼽으라고 한다면 대부분이 침례교 선교사들이 세운 교회를 꼽는다. 이는 팀으로 선교 전략을 세울 때 민족을 대상으로 목표를 세웠기 때문이다.

민족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다보니 각 민족의 언어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주민호 선교사는 “카작인보다 카작어를 더 카작인처럼 말하는 사람”이라고 현지인들이 평가할 정도의 언어 실력을 갖추고 있고, 그 외에도 대부분 선교사들이 각 민족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할 정도의 실력을 갖고 있기에 언어는 침례교 사역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높은 수준의 언어를 할 수 있게 된 것도 팀 사역을 통해 관리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팀에서는 2년간 언어 외에는 아무 것도 하지 못하게 하면서 초기 선교사들이 언어에 집중할 수 있게 해 주었다.

선교사의 사역에 있어서 언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필자는 러시아어로 사역을 하는데 선교사가 언어를 아는 만큼 현지인들이 마음을 여는 것을 보고 언어를 잘해야 영적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결론을 내게 되었다. 언어를 잘하면 잘 할 수록 그 만큼 더 많은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빨리 열매를 보기 위해서 언어 기간을 갖지 않고 서둘러 사역을 시작하기보다 조금 늦더라도 먼저 언어를 잘 준비하고 난 후에 사역을 시작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더 많은 열매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주민호 선교사는 사역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만큼 높은 언어 실력을 갖고 있었지만 그가 선교지를 떠나기 전까지도 개인 투터를 두고 쉬지 않고 언어 공부를 했었다는 사실은 언어가 선교사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실례가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선교사의 언어 기간은 2년이기에 2년만 언어 공부를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선교사에게 있어서 언어는 선교지를 떠나기 전까지 계속 되어야 하며, 나이가 많다는 이유나 다른 이유로 선교사가 언어를 포기한다는 것은 직무유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카자흐스탄 팀 사역은 초기에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알마티 지역과 알마티 주에는 알마타 중앙교회와 살렘교회를 중심으로 개척이 이루어져서 현재 23개의 교회들이, 남카자흐스탄 지역은 침켄트 임마누엘 교회를 중심으로 9개의 교회들이, 동카자흐스탄 지역은 우스까메나골스크 라드닉교회를 중심으로 9개의 교회들이, 서카자흐스탄 지역은 크즐오르다 소망교회를 중심으로 9개의 교회들이, 중부 카자흐스탄 지역은 카라간다 라드닉교회를 중심으로 10개의 교회들이, 그 외에도 북서부 카자흐스탄 지역에는 6개의 교회들이 세워졌으며 지금도 거점 도시와 거점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교회들이 개척되어 나가고 있다. 참고로 알마티 중앙교회는 김동성 선교사가 교회를 개척하여 한 알렉산드르 목사에게 위임한 이후 그 교회는 카자흐스탄 전 지역에 17개의 지교회들을 개척하여 지경을 넓혀 나가고 있다. 그러므로 선교사가 건강한 한 교회를 세우는 것과 한 지도자를 세우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 교회만이라도 거점 지역에 제대로 세워진다면 그 교회는 지역을 넘어 국가, 그리고 세계 복음화에 영향을 줄 것이다.

연합 사역

연합 사역은 혼자 사역을 하는 것보다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경험하기에 좋은 기회를 준다. 그러므로 할 수만 있다면 연합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를 바란다. 중앙아시아 침례교 지부는 처음엔 선교사들이 주도해서 연합 사역을 이루었지만 보고 배우는 현지인 사역자들이 처음엔 그대로 따라하더니 나중엔 더 잘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래서 이제는 연합 사역이 현지인 총회로 이관되어 현지인 사역들에 의해 주도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선교사들은 필요한 부분만 협력하는 형태가 되었다. 중앙아시아 침례교 현지 총회는 2006년도에 만들어져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다.

연례적인 연합 사역으로는 청년 연합 컨퍼런스, 청소년 연합 컨퍼런스, 봄 가을 목회자 세미나, 사모 세미나, 주일학교 교사 연합 컨퍼런스가 열리고 있고 최근에는 가정교회 목회자 세미나, 가정교회 평신도 세미나, 가정교회 컨퍼런스 등 초교파적인 연합 사역도 열리고 있다. 큰 교회들은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가질 수 있는 역량이 있기에 어쩌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더 편하고 교회에 더 많은 유익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카자흐스탄의 침례교회들은 연합 사역의 중요성을 알기에 자체 행사를 포기하고 연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작은 교회들은 이 연합 모임을 통해 성장에 큰 도움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현지인 총회를 통해 연합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지원하는 일까지도 행하고 있다. 현재 몽골, 러시아, 중국 등지에 4명의 선교사를 파송하여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연합 사역은 개교회들이 십일조의 십일조를 총회비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처음엔 큰 교회들만 모델적으로 총회비를 지불하였지만 이제는 카자흐스탄의 모든 침례교회들이 기쁨으로 드리고 있다. 이런 헌신을 통해 피선교지였던 그들이 점차 재정에 대한 믿음과 헌신도가 높아지고 지금은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지 총회의 모습은 중앙아시아 침례교 선교사들의 자부심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교단이나 단체들의 부러움과 모델이 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선교사가 사역을 위임하고 선교지를 떠나 새로운 나라로 이동을 한다 하더라도 현지 총회가 있기에 위임한 현지 교회가 보호를 받을 수도 있고, 선교사의 빈자리가 연합 사역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역의 도움을 받고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결국 연합 사역은 선교사의 위임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위험 요소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좋은 장치가 될 수 있다.

선교하는 한 교회가 중앙아시아에 미친 영향

중앙아시아를 사랑하고 물질과 기도로 헌신해 준 수많은 교회들이 있었다. 그 교회들의 기여를 일일이 다 기록하지는 못하지만 그러한 교회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중앙아시아 열매도 존재하는 것이다. 필자는 그 중에 한 교회를 소개하고자 한다. 여의도 침례교회, (故)한기만 목사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선교 철학을 가지고 중앙아시아를 향한 특별한 사랑과 관심과 기도로 아름다운 열매의 초석의 역할을 해 주었다. 중앙아시아 거점 지역의 교회 대부분이 여의도 침례교회의 지원으로 건축을 하였고, 더 많은 교회가 중앙아시아 지역에 개척될 수 있도록 교회 개척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어 교회 건물 구입에 필요한 재정도 지원했다. 이러한 재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여의도 침례교회는 교인들이 의미있는 선교사역에 동참하도록 기회를 제공했다. 예를 들면, 회사 정년 퇴직을 하는 교인들의 퇴직금 일부를 헌금하거나 또는 환갑 잔치 대신 그 비용으로 교회 개척 지원금을 헌금하도록 독려하여 지금까지 중앙아시아 지역에 약 25개 이상의 교회가 건물을 구입해서 교회 개척을 시작할 수 있었다. 지금은 중앙아시아 현지 총회가 총회비인 십일조의 십일조 재정을 통하여 교회개척 지원사역을 계승하여 이어오고 있다. 그래서 점차 한국 교회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교회를 개척하고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고 있다.

또한 중앙아시아 침례신학교는 2년 학제로 약 17명의 학생들이 자녀들과 함께 기숙을 하면서 공부하도록 되어 있다. 여의도 침례교회는 신학교 운영에 들어가는 모든 재정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지금은 여의도 침례교회에서 90%, 중앙아시아 현지 총회에서 10% 지원하고 있다.) 신학 공부를 하는 동안 학비와 가족들의 식비, 생활비를 지원해 주고, 뿐만 아니라 신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학생들에게 5년 간 생활비를 지원함으로써 신학교 졸업생들이 전적으로 교회 사역만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것은 신학생들이 졸업 후 다시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교회 사역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초기 개척 사역에 재정적 도움이 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여의도 침례교회는 총회 연합 사역의 중요성을 함께 인식하고 많은 부분의 재정을 지원함으로써 연합 사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다.

한 해에 여의도 침례교회가 중앙아시아 선교 사역을 위해 지출되는 교회 재정은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다. 하지만 헌신된 한 교회가 오랜 기간 중앙아시아를 위해 헌신하고 지원 하였을 때 그 열매 또한 상상을 초월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고, 그 열매는 돈의 가치로 따질 수 없는 결과를 보게 된 것이다. 여의도 침례교회와 같은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선교하는 교회와 교단

카자흐스탄에 세워진 침례교회들은 선교하는 교회요, 교단이라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2014년도에 한 교회가 여름 단기 선교팀을 구성하여 타문화권으로 보내기 시작하면서 선교하는 교회로서의 역할과 활동을 시작하였는데, 다른 교회의 현지인 사역자에게 도전이 되었고, 지금은 카자흐스탄의 대부분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었고, 선교하는 교단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알마타 중앙교회는 2015년 78명의 교인을 10개국으로 보내기 시작해서 2019년도에는 14개국(아제르바이잔, 바쿠, 이스라엘, 인도,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말레이시아, 모잠비크, 터키, 피지,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키르기즈스탄)에 480명의 성도를 32개의 팀으로 나누어 단기 선교로 보냈다. 코로나만 아니었다면 아마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를 이번에 보고해 드렸을 것이다. 현지 교회가 이런 선교사역을 한다는 것은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 교회는 한국인 선교사들이 사역하는 선교지를 연결해서 방문하는데 세계 각지에서 한국 선교사들이 헌신하는 모습과 열매를 보면서 은혜를 받고 돌아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에게도 사랑하고 존경하며 감사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된다.

알마타에 있는 살렘교회는 카작인이 95%나 된다. 이들은 기독교인이 되기 전까지는 모슬렘 정체성을 가졌었던 사람들이다. 이들이 모슬렘권에 나가서 선교하는 모습은 참으로 감동적이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 교회의 대부분 교인들이 가난한 성도들이나 매년 단기 선교를 위해 엄청난 헌신과 댓가를 지불한다. 단기 선교를 위한 비행기표와 선교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1년 동안 자신의 월급을 저축하면서 단기 선교에 동참하기도 한다. 이런 헌신을 통한 단기 선교의 모습은 떠나는 이들도 큰 도전을 받지만 그들을 맞이하는 교회들이 더 큰 은혜와 도전을 받는다고 한다.

필자가 개척하여 현지인에게 이양한 카라간다 라드닉교회도 올해 3년 째 왕복 4,000킬로가 넘는 키르기즈스탄 교회에 성도들과 함께 직접 차를 몰고 가서 약 5,000불의 예산을 들여 어린이 캠프를 해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매달 10명의 선교사에게 재정 후원을 하고 있으며, 개척한 지 4년 밖에 되지 않은 알마타 라드닉교회도 개척 예배를 드리는 날 1명의 선교사에게 후원하기로 결정한 후로 지금은 3명의 선교사에게 매달 선교후원을 하고 있다.

이처럼 카자흐스탄의 많은 침례교회들이 선교사역을 시작하면서 이제는 받는 것보다 드리는 삶과 희생하는 삶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 카자흐스탄의 침례교회는 선교를 시작하면서 더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양과 떠남.

2021년은 카자흐스탄 선교가 시작된 지 30년이 된 해였다.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2022년 3월에 “카작선교 30주년” 기념행사를 계획보다 작은 규모로 가질 수 밖에 없었다. 그때에 현 카자흐스탄 선교사 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 사역하다가 다른 나라로 떠난 선교사들도 홈커밍 데이로 기념행사에 참여할 수 있었고 필자도 그 역사적인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었다. 카작 선교 30주년 때에 함께 나누고 고민했던 주제들을 한 마디 키워드로 표현한다면 “이양과 떠남”이었다. 이미 사역을 위임하고 타국으로 떠난 이들도 있지만 많은 선교사들이 이양을 앞두고 고민하고 있었다. 선교사들은 언젠가는 사역을 위임하고 떠나야 한다. 과거에는 선교지에 오래 있으면서 뼈를 묻는 것을 선교사의 아름다운 모습처럼 생각했었다면 이제는 사역을 위임하고 떠나는 것을 아름다운 모습처럼 생각한다. 가능한 한 더 빨리 위임하고 선교지를 떠나라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선교사의 이양과 떠남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언제 사역을 위임하고 떠나야 할지, 그 시기를 정하는 것은 선교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현 중앙아시아 침례교 현지 총회장인 한 알렉산드르 목사는 “선교사가 현지인 사역자에게 너무 빨리 사역을 위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요청한 바가 있었다. 언젠간 사역을 위임해야 할 때가 오고, 또 반드시 위임해야 하겠지만 그 시기에 있어서는 매우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양과 떠남이 너무 늦어 현지인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비참하게 쫓겨나는 다른 나라 상황들을 듣기도 한다. 그렇다고 조급해 하거나 무리한 이양은 오랜 시간 헌신하여 쌓은 사역들을 한 순간 다 잃어 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필자도 카자흐스탄에 있는 두 교회를 현지인 사역자에게 완전히 사역을 이양하고 현재는 조지아에서 새롭게 사역을 시작하고 있다. 모든 선교사는 사역을 시작함과 동시에 이양과 떠남을 준비해야 한다. 아름답게 떠나는 것은 선교사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고 보여진다.

결 론

중앙아시아 지역을 구소련이 70년 동안 장악하고 있었던 시기를 어떤 면에서 볼 때에 “영적 공백기”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 30년 동안 중앙아시아 지역은 놀라운 교회 성장을 이루었다. 이는 결코 중앙아시아에 살고 있는 한국 침례교 선교사들만의 열매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고,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과 함께 하심이 있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땅의 선교사들은 단지 아무도 가지 않았던 곳을 열심히 걸었을 뿐인데 어느 새 그곳에 길이 나 있었고 꽃과 열매들이 길 가에 아름답게 피어 있었다.

필자는 1996년도에 처음 카자흐스탄 땅을 밟으며 단기 선교사로 사역을 시작하면서, 우스까메나골스크에 교회 개척 사역을 도왔고, 그 후로 카라간다, 찌미르타우, 알마티에 교회를 개척하였으며, 2021년 10월에 조지아 트빌리시로 사역지를 이동하기까지 그 부흥의 역사 한 가운데에 증인으로 살아왔었다. 죽음의 위기와 두려움이 있었고, 죽을 만큼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었고, 현지인들의 배신으로 많이 울었던 때도 있었다. 하지만 지난 30년의 시간들을 돌이켜 볼 때에 아름다운 선후배들과 함께 한 몸을 이루어 그 땅의 영혼들을 사랑하며 살아왔다는 것이 너무도 자랑스럽고 행복하고 감사하다. 그리고 그곳에서 배웠던 경험들이 이제는 새로운 사역지인 조지아 땅에서도 많은 열매로 드려질 수 있기를 소망한다. 더불어 이 강의를 듣는 모든 선교사들의 사역 가운데에도 길 안내를 위한 귀한 이정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